

# ['고난의 역사현장'일제전적지를 가다](98)

제3부:군사요새로 신음하는 제주-38 (3)서귀포지역도 예외 아니-(31)삼매봉 해안  
'인간병기'주둔했던 일본군 자살특공기지

입력 : 2008. 04.17. 00:00:00



▲서귀포시 삼매봉 해안가에 구멍처럼 송송 뚫린 일본군 특공진지. /사진=이승철기자

## 해안선에 10~30m 길이 갭도 12곳 구축 근대문화유산 제외 등 방치... 대책 시급

1945년 초반이 되면 제주에는 특수임무를 띤 일본군 병력이 상당수 주둔한다. 이 시기는 일본군이 제주도를 동시다발적으로 전쟁기지화 하기 시작하는 시점이다. 중국대륙에서 관동군이 직접 제주로 이동하는가 하면 일본토에서도 대규모 병력이 직접 제주에 상륙한다.

그 가운데 이제껏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병력이 바로 일본군 특공부대다. 이들 병력은 나무로 만든 배에 폭약을 싣고 상륙하는 함정을 자살공격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이러한 일본 해군의 특공부대는 1945년 2~3월에 접어들면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한다.

서귀포시 서흥동 소재 삼매봉(三梅峰 ·표고 1백53.6m) 해안가. 이곳 절벽 하단부에는 시커먼 입구가 구멍처럼 송송 뚫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곳이 바로 일본 해군이 자살특공정을 숨겨놓기 위해 인공적으로 갭도를 뚫어놓은 특공정기지다. 갭도는 화산쇄설성 퇴적층과 현무암층을 뚫고 만들었다.

삼매봉 해안 갭도의 용도는 무엇일까.



▲특공진지 안에서 입구를 바라본 풍경. 문석이 가깝게 보인다.

이와 관련 일본 자료인 '사진집-인간병기 진양특별공격대'에는 격납호(格納壕)라 표기된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곳은 '진양정격납호'(震洋艇格納壕)로 구축된 것이다. 진양특별공격대는 나무 합판으로 만든 배에 2백50kg 정도의 폭약을 싣고 상륙하는 함정을 향해 자살공격 하는 것이 주 임무로 알려져 있다.

삼매봉 해안에서 확인되는 갯도는 모두 12곳이다. 각각 15m 안팎의 거리를 두고 직선으로 나란히 뚫려 있다. 길이는 약 10m에서부터 최장 30m까지 이른다. 내부 폭은 3m에서 450cm까지 다양하다.

이곳 갯도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열 번째 갯도다. 이 갯도는 직선형으로 된 것 같지만 내부는 열 한번째 갯도와 연결돼 있다. 전체적인 구조가 h자 형으로 된 갯도인 것이다. 갯도 모양으로 볼 때 이곳은 어뢰정을 수리하고 조정하는 용도로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구조는 송악산해안의 자살특공정기지에서 볼 수 있다.

이곳에는 어떤 부대가 주둔했을까. 아직까지 일본군 자살특공기지로만 알려져 있지 주둔부대의 실체는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진집-인간병기 진양특별공격대'를 보면 삼매봉 해안에 주둔했던 부대가 구체적으로 드러나 관심을 모은다. 즉 이곳에는 제주 주둔 진양대 가운데 제119진양대가 주둔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나카(田中)부대로 불린 제119진양대는 총 1백 87명으로 편제됐다. 1945년 3월30일 편성돼 같은 달 25일 진해경비부로 배속된 뒤 그해 4월9일 서귀포에 배치됐다. 자살특공정인 '진양'은 5형(五型) 26척이 배치됐던 것으로 나타난다.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삼매봉 해안에는 실제 일본해군의 자살특공부대인 진양대가 주둔했던 것이다. 이들은 직접 지귀도를 한바퀴 돌면서 실전에 대비한 연습에 나서기도 했다.



▲크고작은 돌덩이들이 들어차는 등 방치되고 있는 특공진지 내부(왼쪽)와 특공정진지를 조사하는 취재팀.

특공기지 건설은 제주도민 뿐 아니라 다른 지방 광산 광부들까지 강제 동원돼 거의 맨손으로 이뤄졌다. 다른 지방 광부들은 경북 봉화 다덕광산, 전남 광양의 사곡광산광부들로 알려졌다. 이들에게는 목괘이 등이 작업도구의 전부였다. 강제 징용자들은 30명 정도를 1개 소대로 모두 3개조로 구성, 3교대로 밤낮없이 일했다.

삼매봉 해안은 말 그대로 일제의 무모한 전쟁야욕 뿐 아니라 고통스런 강제노역의 현장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지만 중요한 역사현장인 이곳은 무관심 속에 방치되면서 날로 훼손되고 있다. 갯도 내부는 온통 페스티로폼과 자갈 등으로 들어차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곳은 지난 2006년 정부가 처음으로 지정한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에도 올라있지 않는 등 당국의 관심부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삼매봉 해안의 특공정기지를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추가 등재 등 보존정비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특별취재팀=이윤형·표성준·이승철기자

### [탐사 포커스] 日 진양대... 바다의 가미가제

태평양전쟁 후반기에 제주에 진주했거나 주둔 예정이던 자살특공부대는 모두 4종류다. 교룡(蛟龍) 해룡(海龍)과 카이텐이라 불린 회천(回天), 진양(津洋) 등이 그것이다.

'가미가제'(神風)가 전투기를 몰고 연합군 함대를 자살공격 했다면 이들은 소형선박을 이용해서 연합군 함정에 자살공격 하도록 임무를 부여받았다. 일종의 바다의 가미가제에 비유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진양부대는 실제 제주에 배치됐다. 일본 해군 진양대는 모두 3개 부대다. 진해경비

부 소속의 제45진양대(고산 수월봉 주둔)를 비롯 제119진양대(삼매봉 주둔), 제120진양대(성산포 주둔)가 그것이다.

1945년 3월부터 제주에 진주하기 시작한 이들의 총병력은 얼마나 될까. 일본측 자료에 따르면 이들 특수부대의 병력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즉 무라야마(村山)부대라 불린 제45진양대는 1백88명, 119진양대는 1백87명, 제120진양대는 1백91명으로 나타났다. 자살공격을 주 임무로 하는 진양대 병력만 5백66명이다. 여기에다 카이텐 병력까지 포함할 경우 제주에 배치되거나 배치예정인 일본해군의 자살특공정부대는 1천명 선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윤형기자

※한라일보([www.hallailbo.co.kr](http://www.hallailbo.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저작권 문의 특별취재팀 064-750-2231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